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 ‘우연’이 지배하는 세상

누구나 한두 번쯤은

꿈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글. 최원석 (자유기고가)

MBC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한국여성민우회와 경실련 등의 단체에서 2002년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화려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시청률을 발판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진행자와 게스트를 보강하며 앞으로도 그 인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이 최악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은 귀신이나 살인,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소재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사실과 허구를 아무런 구분 없이 방송하여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비과학적이거나 반과학적인 내용이 방송된다는 것이다. 즉 ‘첨단과학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건의 진실은 과학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방송된 놀라운 일화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누구나 평생 한두 번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기 마련이다. 잠자다가 뒤송송해서 놀라서 잠에서 깬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는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호통에 놀란 손자가 다음날 할아버지의 산소에 가보면 산소는 멧돼지에 의해 엉망이 되어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별로 놀랄 것도 못될지

도 모른다. 캐나다 출신의 찰스 코홀란이란 배우는 머나먼 미국에서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죽었고, 공교롭게도 1년 후 허리케인이 그의 묘지를 덮쳐 그의 관은 그만 바다에 쓸려 내려가고 말았다. 그리고 8년 후 그의 관은 무려 5600km나 떨어진 그의 고향 마을 해변에 나타났다.

널리 알려진 우연의 일치로는 ‘슈퍼맨의 저주’라는 것이 있다. <슈퍼맨>의 원작자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는 슈퍼맨을 혈값에 팔고 난 뒤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몇 번이나 했지만 모두 패했으며, 이후 변변한 작품을 내지 못했다. <슈퍼맨>을 연기한 커크 앨런과 조지 리브스는 그 역 이후 별다른 역을 맡지 못했고, 결국 조지는 총에 맞아 죽었다. 가장 유명한 슈퍼맨인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고, 결국 2004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와 같이 슈퍼맨과 관련된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슈퍼맨의 저주’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개봉한 <슈퍼맨 리턴즈>의 배우들에게도 사소한 말썽과 사고가 생기자 저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있었다.

심리학자 융(C. G. Jung)은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Wolfgang Pauli)와 함께 ‘동시성- 비인과적인 연관의 원리’에서 인과율이 성립하지 않는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Synchronicity)’이라고

불렀다. 즉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연관성이 존재하며, 영혼과 물질과도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용의 동시성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파시나 예지 능력을 검증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이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다. 용의 동시성은 근본적으로 물리학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매일 같이 꿈을 꾸다. 꿈을 꾸는 도중에 일어나면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보통 꿈이 적중할 확률은 1만분의 1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꿈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꿈은 영화처럼 분명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꿈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꿈이 미래를 예견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그러한 일이 생긴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어떠한 이유를 찾아 설명하도록 진화했다. 즉, 우리의 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건에서조차 이를 해석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인과 관계를 따지고 주

변을 해석하는 뇌의 능력이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등장한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이를 해석해 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물에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항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동선수가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우연에 의해 자신의 경기 결과가 결정되는 것 보다는 징크스를 통해 우연을 통제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신탁에 의지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모두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사실 세상은 우연에 의해 돌아간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도 우연이다. 때마침 6천5백만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진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항상 진행하는 듯이 보이지만 진화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다. 굴드의 이야기처럼 진화의 비디오를 감았다가 다시 돌리면 생물들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TTA**